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오센트로 파빌리온4에서 열린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대한민국(이용대, 유연성)-말레이시아의 8강 경기에서 한국 이용대가 상대 서를록을 받아 넘기고 있다.

# 이용대-유연성, 충격의 8강 탈락

〈남자 배드민턴 복식〉

### 말레이시아 조에 1-2 역전패... 남자복식 20년만에 노메달 여자복식 정경은-신승찬 네덜란드 조 제압 4강 진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 조가 8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이용대-유연성 조는 15일 밤(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오센트루 파빌리온 4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복식 8강전에서 고위시염-튀위키웅(말레이시아) 조에 1-2(21-17 18-21 19-21)로 역전패 당했다.

두 선수는 첫 세트를 가볍게 따내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도전을 멈췄다.

2세트는 쉽지 않았다. 1세트에 위력을 떨쳤던 네트 앞 공격에서 실수가 속출해 점수를 잃었다. 12-18에서 18-19까지 따라잡은 뒷심을 발휘했지만 드라이브 싸움에서 밀려 한 세트를 헌납했다.

3세트에서는 경기 중반에 밀리다가 13-16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거듭된 스매시에 다시 점수를 빼앗겼다. 두 선수는 16-20을 19-20으로 바꾸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이용대의 수비가 네트를 넘기지 못해 패배가 확정됐다.

세계랭킹 3위 김시량(27)-김기정(26·이상 삼성전기) 조는 중국의 푸하이펑-장난 조에게 1-2(21-11 18-21 22-24)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시량-김기정 조에 이어 믿었던 이용대-유연성까지 토너먼트 첫 관문에서 고

배를 마시면서 한국 남자복식은 노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남자복식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 조는 4강에 이름을 올렸다. 두 선수는 에이프에 무스켄스-셀레나 피크(네덜란드) 조를 세트스코어 2-1(21-13 20-22 21-4)로 제압했다.

정경은-신승찬 조는 세계랭킹 1위인 마츠토모 미사키-다카하시 아야카(일본) 조와 4강에서 맞붙는다.

또 다른 여자복식 조인 세계랭킹 9위 장예나(27·김천시청)-이소희(22·인천국제공항) 조는 카밀라 리테르 울-크리스티나 페데르센(덴마크) 조에 1-2(26-28 21-18 15-21)로 패배 아쉬움을 삼켰다.

장예나-이소희 조는 1세트에서 7차례나 듀스 접전을 펼치는 등 세계랭킹 6위 조를 상대로 선전했으나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손에 넣지 못했다.

남자단식에서 유일하게 토너먼트를 밟은 세계랭킹 8위 손완호(28·김천시청)는 16강에서 세계랭킹 13위 응가롱 앵거스(홍콩)의 추격을 2-0(23-21 21-17)으로 따돌렸다.

손완호의 준결승 상대는 세계랭킹 2위 천룡(중국)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천룡이 앞서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5월

토마스컵에서는 손완호가 이겼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성지현(25·MG새마을금고) 역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세계랭킹 7위 성지현은 여자단식 16강에서 세계랭킹 32위 린다 제치리(29·불가리아)를 2-0(21-15 21-12)으로 꺾었다. 성지현은 8강에서 세계랭킹 1위 마린 카를리나(스페인)와 맞붙는다.

세계랭킹 17위 배연주(26·KGC인삼공사)는 16강전에서 세계랭킹 6위 오쿠하라 노조미(21·일본)에 0-2(6-21 7-21)로 완패했다.

한국 남자탁구는 중국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동메달결정전으로 밀려났다. 주세혁(36·삼성생명), 정영식(26·미래에셋대우), 이상수(26·삼성생명)로 꾸려진 한국 남자 탁구대표팀은 단체전 4강에서 중국에 게임스코어 0-3으로 패했다.

대표팀은 오는 17일 독일을 상대로 동메달결정전을 치른다.

육상 김덕현(31·광주광역시청)은 남자 세단뛰기에서도 올림픽 결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그는 이날 치러진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36을 뛰어 전체 45명의 선수 중 27위에 그쳤다.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는 예선에서 16m95를 뛰거나 상위 12명 안에 들어가 결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동시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덕현은 앞서 벌어진 멀리뛰기에서도 14위에 그쳐 아쉽게 결선행이 좌절됐다.

지난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멀리뛰기 결선 진출에 실패했던

김덕현은 이번에도 결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 남자 사이클의 박상훈(23·서울시청)은 남자 유니엄 포인트레이스 도중 낙차 사고를 당해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 경기 시작 전 18명 중 14위를 기록 중이었던 그는 최종 실격 처리됐다.

유니엄은 이틀간 스크래치, 개인추발, 제외경기, 독주(타임트라이얼), 플라잉 랩, 포인트 경기 등 6가지 세부종목을 소화하는 사이클 종합경기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박상훈은 이날 마지막 종목인 포인트레이스에서 낙차 사고를 당하며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한국 다이빙의 기대주' 우하림(18·부산체고)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예선 탈락했다.

한편 북한의 체조 영웅 리세광(31·북한)이 여자 역도의 링점심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세광은 체조 남자 도마 결선에서 1·2차시기를 합계 평균 15.691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예선에서 15.433점을 받아 1위로 통과한 리세광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 자신의 첫 올림픽 메달을 금으로 장식했다.

이날 메달 추가에 실패한 한국은 금 6개, 은 3개, 동 5개로 종합 10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이 금 26개, 은 23개, 동 26개로 종합 1위를 질주했고, 영국(금 16·은 17·동 8), 중국(금 15·은 14·동 17)이 뒤를 이었다.

/김민근 기자



### 우석대 태권도특성화사업단 공연서 기술 선보여

우석대학교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이 화려한 태권기술을 선보이며 중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중국 강소성의 초청으로 중한청소년무도대회에 참석한 우석대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은 장애물 역회전 1060도 격파나 중국의 유행가에 맞춘 태권안무등을 선보이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상 중한청소년무도대회 조직위원장은 "지난 1월1일 공연 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됐다"며 "이번 공연 역시 우리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대 충분했다"며 호평했다.

최상진 우석대 태권도학과장은 "중국 내 태권도 인구 증가와 함께 태권도가 새로운 한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올림픽 조직위, '권총 강도' 당한 록티에 공식 사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미국 수영스타 라이언 록티(32)에게 공식 사과했다.

마리오 안드라다 리우올림픽 조직위 대변인은 16일(한국시간) "록티가 당한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조직위는 도시의 치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보안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기간 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록티와 그의 동료 3명은 지난 14일 올림픽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수영 대표팀 숙소에서 다녀오다 택시에서 강도를 만났다. 무장한 경찰처럼 위장한 강도들은 택시를 세우고 선수들의 돈과 소지품을 빼앗아 갔다.

록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 배치를 단 사람들이 갑자기 택시를 세웠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이마에 총을 겨누는 뒤 돈을 전부 빼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 올림픽 조직위 한국 태권도 대표 황경선 국적 오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 태권도 대표 황경선의 국적을 북한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인포 2016'에 따르면 조직위는 15일(한국시간) '숫자로 보는 태권도(Taekwondo By the numbers)'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황경선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선수라고 돼 있다. 하다 사에이(이란), 스티븐 로페스(미국), 천중·우징위(중국) 등도 같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황경선의 국적이었다. 국적란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KOR'가 아닌 북한의 'PRK'가 적혀 있었다.

국적 오기소식을 전해들은 조직위는 황경선의 국적을 북한이 아닌 한국이라고 바로 잡았다.

황경선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67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같은 체급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김민근 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